

## 18. 정밀부품 기계가공 근로자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

**성별** 남 **나이** 47세 **직종** 정밀부품 기계가공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전○○은 1989년부터 14년간 정밀부품 기계가공 업무를 하던 근로자로 2006년 4월에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전○○은 1989년 10월 입사하여 2003년 2월까지 근무하였는데, 2조 맞교대로 주 6일 12시간 근무하였다. 황동선을 절단, 가공하여 휴대용 부탄가스 연료 분사구의 노즐을 만들었다. 전○○은 1989년부터 1997년 10년간, 이후 연 2-3개월, 구형 자동선반작업에 임하였다. 구형자동선반은 황동관을 직접 기계에 적재하였고 가공부가 개방되어 있어 금속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정밀은 근로자 7인의 영세사업장으로 1993년 남동공단에 입주하였는데, 당시 건물은 붉은 벽돌건물이었으며 시공이 완료된 후 입주하였다. 주변에 공장 신축 및 보수현장이 많았으나 확인된 바 없으며, 목재소공장이 있었다. 건축 자재에 대한 정보는 얻기 어려웠으나 슬레이트 지붕은 없었다고 한다. 2003년 1월 현재 주소로 이주하였고 건물구조는 간이식 컨테이너 재질이다. 과거에 쓰던 장비를 그대로 들여왔으며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을 시행한 적은 없다. 사용하는 물질은 가공되는 황동선과 선반기계에서 사용하는 절삭유등이며, 탈지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배치된 MSDS는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전○○은 20대 초반부터 금속 부품 제조사에서 일했고 1989년부터 14년간 금속부품 가공 업무를 하다가, 2003년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로 생활하였다. 과거병력과 검진결과는 없었고 흡연은 15갑년이였다. 2005년 11월부터 좌측 흉부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좌측 흉수가 발견되어 12월 K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항 결핵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고 이후 흉수양이 증가하여 2006년 4월 입원하였다. 이때 촬영한 CT상 악성 중피종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흉막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받았다. 항암치료 받던 중 호흡기 상태 악화되어 2006년 6월 사망하였다.

**4. 결론:** 근로자 전○○은

- ① 흉막의 악성 중피종으로 확진되었고,
- ② 악성 중피종은 대부분(80-85%) 석면에 노출된 후 발생하나,
- ③ 금속 정밀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환경적 노출은 파악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전○○의 질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